호남 최대 규모 '광주식품대전' 내일 팡파르

24일까지 DJ센터…300개 기업 참여
해외 바이어도 52명 초청 역대 최다
식음료산업 경향 반영 특별관 운영

광주의 독보적인 '맛'을 하나의 브랜드 자산으로 구축하고 이를 세계시장으로 연결하는 호남 최대 규모 식품축제가 21일 막을 올린다.

광주시는 21-24일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식품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산업적 도약을 이끄는 '2026 광주식품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광주식품대전은 300여개 기업이 400여개 부스를 가득 채우며 지역 식문화의 우수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호남 식품산업의 세계시장 도약을 위해 비즈니스를 대폭 강화했다.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 판로를 지원하는 유통·구매 상담회는 물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규모를 지난해 24명에서 올해 52명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 우수 식품기업들이 내수 진작을 넘어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시관 구성을 살펴보면 대형 식품기업과 지역 대표 브랜드의 조화가 돋보인다.

농심, 하이트진로 등 국내 대표 대기업과 함께 창억떡, 궁전제과, 베비에르, 브래드세븐 등 광주를 상징하는 향토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해 관람객들의 오감을 자극할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한 전시장 내에서 실시간 라이브커머스를 송출해 현장의 활기를 온라인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최신 식품음료(F&B)산업 경향을 반영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특별관도 눈길을 끈다.

지역 유명 인플루언서 '슈가토끼'가 엄선한 '빵·디저트 큐레이션'존을 비롯해 광주의 힙한 커피문화를 만날 수 있는 '로스터리 카페 콜렉티브'존, 지역 식품음료산업의 전국화를 꾀하는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대전' 등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 밖에 광주와 대구의 상생과 연대를 담은 '달빛동맹관', '광주전남 미식특별관' 등을 통해 지역 간 교류와 미래 식품 경향을 조망한다.

아울러 전시장 안팎에서 펼쳐지는 '광주셰프 챌린지', '전국 초밥왕 인 코리아', '친환경 K-FOOD 창업요리대전'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축제의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올해 박람회는 산업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광주의 맛과 멋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종합 미식축제가 될 것"이라며 "식품산업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동구 자살예방협의체 회의 광주 동구 자살예방협의체 회의가 19일 동구청 상황실에서 열려 동구청장 권한대행, 국장, 과장, 동장, 경찰·소방 관계자 등 30여명이 자살 예방 협력 체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5·18기록관, 서울서 '오월영화' 상영회

내일부터 27일까지 서울영화센터
장·단편 영화·기록관 수집영상 등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21-27일 서울 중구 서울영화센터에서 한국영화인협회와 함께 '다시, 꿈의 나라'를 주제로 '오월영화'를 특별 상영한다.

상영회는 기록관이 소장한 영상물을 서울시민과 공유하고 영화라는 대중적이고 감각적인 매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수도권 문화공간인 서울영화센터에서 상영회를 열어 지역 간 기억의 간극을 좁히고 세대 간 공감을 확산할 계획이다.

상영작은 장편영화 5편('오! 꿈의 나라', '택시운전사', '외롭고 높고 쓸쓸한', '부활의 노래', '박하사탕')과 단편영화 3편('오월의 만다라', '디데이 프라이데이', '우리가 살던 오월은')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발굴영상과 시민촬영영상이다.

이 중 발굴영상은 기록관이 2018년 수집한 것으로 시민 항쟁과 군경의 진압, 시민자치의 형성 과정을 현장감 있게 담고 있다.

시민촬영영상은 2025년 수집한 것으로 1980년 5월21일 금남로 일대를 포착해 사건 전개의 시간적 맥락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상영회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한국영화인협회가 협력 사업으로 추진했다. 기록관은 기록물 제공과 역사적 고증을 담당하고 한국영화인협회는 상영 기획과 운영, 홍보·부대행사를 맡았다. 또 5·18 공법 3단체 서울지부와 서울특별시가 오월정신 확산을 위해 동참했다.

상영회는 문화예술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문화를 일깨우는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기록관은 상영회가 오월 정신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확장하고 민주·인권·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기록을 단순한 보존의 대상이 아닌 경험 콘텐츠로 확장, 5·18민주화운동의 보편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세대와 지역을 넘어 오월정신에 대한 깊은 공감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함평 석두마을, 어촌체험휴양 고도화

8억 투입 카라반 리뉴얼·시설 확충

전남도는 19일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함평 석두마을이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포함, 총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체계적 휴양마을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어촌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전환하는 어촌마을의 체험·숙박·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체류형 어촌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함평 석두마을은 2011년 2월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이후 함평만 갯벌 생태자원과 해변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전남의 대표 어촌관광 마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도는 관광객 이용 편의와 체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 제작과 설치 ▲노후 카라반 리뉴얼 ▲안내소 리모델링과 운영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 숙박·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관광객 안내 기능과 운영시설을 보강해 단순 체험 중심의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어촌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양시원 기자

6·3 지방선거 <6> Q&A

Q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A. 선거운동 기간 중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시·군의 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①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해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④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위 ③, ④의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는…
위 ①, ②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를 초청합니다.

Q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초청 외 후보자)는 어떻게 하나요?

A.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모든 초청 외 대상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초청 외 대상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Q 방송사에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나요?

A. 공영 방송사와 지상파 방송사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방송해야 합니다. 다만 구·시·군의 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공영 방송사 또는 지상파 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해 중계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